



“방송콘텐츠 기획안, 해외진출 노력하세요”

- 아시아 최대 콘텐츠마켓 참여해 홍보 및 투자 상담 등 지원...11개사 모집 -

올 12월 싱가포르에서 열릴 아시아 최대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콘텐츠마켓에 참여해 해외 투자 상담 등 지원을 받을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이상훈)은 10일 ‘2026년 아시아 최대 콘텐츠마켓(ATF; Asia TV Forum&Market)’과 연계한 방송콘텐츠 해외유통 지원 사업에 참여할 방송사업자 및 제작사 등 사업자를 이날부터 9월 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아시아 최대 콘텐츠마켓(ATF)’은 매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올해는 12월 3~5일 열리며, 정부는 지난 2024년부터 행사 연계를 통해 국내 방송콘텐츠 홍보와 인공지능·디지털 기반 방송프로그램의 해외진출 유통을 지원해 왔다.

작년에는 국내 방송콘텐츠 11편을 지원한 결과 해외 사업자 등과의 공동 제작 28건, 방영권 구매 22건, 배급 및 유통 69건, 기타 협업 논의 33건 등 총 152건의 해외진출 유통 및 상담 성과를 거뒀다.

올해도 국내 방송콘텐츠 기획안 및 우수 작품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쇼케이스, 비즈매칭 홍보관 참가를 지원하며, 기획 단계(기획안)의 국내 방송콘텐츠 7편과 인공지능·디지털 기반 방송콘텐츠 지원작 4편 등 총 11편을 선정, 각 작품별 참가자 1인의 항공료 및 숙박비가 지원된다.

분야	지원대상	지원조건
쇼케이스 (7편 이내)	기획 단계(기획안)인 국내 방송 콘텐츠	1. 국내 방송콘텐츠 사업자 또는 1인 창작자(독립PD, 작가 등) 2. 드라마·비드라마 장르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제외) 3. 영문 트레일러(3분내외) 제작 필수 4. 신청 작품의 해외 판매 저작권 보유 필수
비즈매칭 홍보관 (4편 이내)	‘25년~’26년 KCA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선정작	1. KCA 해외진출형 지원사업 드라마, 비드라마 분야 선정 사업자(K-DOCS, 공공공익 분야 제외) 2. 선정 작품 현장 소개영상(3분내외) 제작 필수 3. 신청 작품의 해외 판매 저작권 보유 필수

특히 최근 2년간('24~'25년) 아시아 국가 최초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방송콘텐츠를 소개해 왔으며, 이를 인정받아 올해 처음으로 행사장 내 인공지능 콘텐츠 및 기술을 집중 조명하는 ‘인공지능 전용 홍보관(The AI Are)’도 신설될 예정이다.

해외 투자사와의 협업 기회 모색과 해외 진출 성과를 이어나갈 이번 공개 모집의 세부 사항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누리집(<https://www.kc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방송미디어진흥국 디지털방송미디어정책과	책임자	과 장	함형철 (02-2110-1620)
		담당자	사무관	유인설 (02-2110-1636)
관련 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방송콘텐츠진흥팀	책임자	팀 장	한성돈 (061-350-1401)
		담당자	대 리	마경선 (061-350-1403)

